

Central Theme: Holiness Is Revealed in How We Live While We Wait

Devarim 21:10–25:19 brings Torah into ordinary life—marriage, family, property, lost objects, clothing, work, wages, lending, justice, dignity, and even the treatment of animals. Holiness is not confined to worship; it must govern everyday conduct.

Yishayahu 54:1–10 speaks to a people who have experienced shame, abandonment, and judgment. Yet YHWH promises restoration: **“For the mountains shall depart and the hills be removed, but My kindness shall not depart from you.”**

Mattiyahu 24:29–42 turns our attention toward the coming of the Son of Adam and concludes with a command: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what hour your Master is coming.”**

1. Guard the Dignity of the Vulnerable

Devarim repeatedly restrains the power of the strong. The captive woman must not simply be treated as property (21:10–14). The disliked wife's son must not be deprived of his rightful inheritance (21:15–17). The poor worker must receive his wages promptly (24:14–15). The widow's garment cannot be taken as a pledge (24:17).

Mussar: Our character is revealed most clearly when we possess an advantage over another person. Torah asks not merely, “What am I permitted to do?” but, “How am I using the power placed in my hands?”

2. Do Not Look Away

“You shall not hide yourself.” (Devarim 22:1–4). When your brother's animal wanders away, you return it. When something is lost, you protect it until it can be restored. When an animal collapses under its burden, you help lift it.

신명기 21:10–25:19 은 토라를 일상의 삶 속으로 가져온다. 결혼, 가족, 재산, 잃어버린 물건, 의복, 노동, 품삯, 빌려주는 일, 공의, 인간의 존엄성, 심지어 동물을 대하는 태도까지 다룬다. 거룩함은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의 행동을 다스려야 한다.

이사야후 54:1–10 은 수치와 버림받음과 심판을 경험한 백성에게 말씀한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신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애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마태야후 24:29–42 은 우리의 시선을 인자의 오심으로 향하게 하며 명령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신명기는 반복해서 강한 자의 힘을 제한한다. 포로로 잡힌 여인을 단순한 소유물처럼 대해서는 안 되며(21:10–14),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이 정당한 상속권을 빼앗겨서도 안 된다(21:15–17). 가난한 품꾼에게는 즉시 품삯을 주어야 하며(24:14–15),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아서 안 된다(24:17).

무사르: 우리의 성품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토라는 단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고, “내 손에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못 본 체하지 말라.” (신명기 22:1–4). 형제의 짐승이 길을 잃으면 돌려주고,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면

주인에게 돌아갈 때까지 보호하며, 짐승이 짐 아래
쓰러져 있으면 함께 일으켜 세워야 한다.

무사르: 가장 쉬운 죄 가운데 하나는 의도적인
외면이다. 필요를 보고도 그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스스로 설득하는 것이다. 토라는 손을
훈련하기 전에 먼저 눈을 훈련한다. 먼저 외면하지
말라.

Mussar: One of the easiest sins is cultivated blindness—
seeing a need and convincing ourselves that it belongs to
someone else. Torah trains the eyes before it trains the hands:
first, refuse to look away.

3. Build a Guardrail Before the Fall

**“When you build a new house, then you shall make a
parapet for your roof.”** (Devarim 22:8). Torah does not tell
us merely to respond after someone falls. It commands us to
anticipate danger.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신명기
22:8). 토라는 누군가가 떨어진 후에 대응하라고만
하지 않는다.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라고
명령한다.

Mussar: Spiritual maturity builds fences before temptation
becomes failure. Ask: *Where in my life do I already know I
am vulnerable?* Wisdom does not wait for the fall before
establishing boundaries.

무사르: 영적 성숙은 유혹이 실패가 되기 전에
울타리를 세운다. *나는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가?* 지혜는 넘어진 후에야 경계를
세우지 않는다.

4. Remember What It Felt Like to Need Mercy

Devarim 24 repeatedly commands Yisrael to remember:
**“You shall remember that you were a slave in
Mitsrayim.”** Their own experience of vulnerability was
meant to shape how they treated strangers, orphans,
widows, and workers.

신명기 24 장은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명한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자신들이 경험했던 연약함을 기억함으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품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신
것이다.

Mussar: Pain can make us harder, or it can make us
merciful. Torah transforms remembered suffering into
compassion. The question is not merely, “What happened
to me?” but, “What kind of person will I become because
I remember it?”

무사르: 고통은 우리를 더 완고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자비롭게 만들 수도 있다. 토라는 기억된 고통을 긍휼로
변화시킨다. 중요한 질문은 단지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기억함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이다.

5. YHWH's Discipline Is Not the End of the Story

Yishayahu 54 acknowledges separation and discipline, but neither receives the final word: “**For a little while I have forsaken you, but with great compassion I shall gather you.**” Judgment is real, but YHWH's covenant mercy reaches beyond it.

이사야후 54 장은 버림받음과 징계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심판은 실제이지만 야훼의 언약적 긍휼은 그것을 넘어선다.

Mussar: Never interpret a difficult season as the complete story. Teshuvah teaches us that failure need not become identity. YHWH can turn correction into restoration and desolation into renewed fruitfulness.

무사르: 어려운 시기를 전체 이야기라고 해석하지 말라. 테슈바는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이 될 필요가 없음을 가르친다. 야훼께서는 징계를 회복으로, 황폐함을 다시 열매 맺는 삶으로 바꾸실 수 있다.

6. Covenant Faithfulness Is More Stable Than Circumstances

“**Though the mountains be removed and the hills be shaken, My kindness shall not be removed from you.**” (Yishayahu 54:10). Mountains appear permanent, yet YHWH says His **hesed** is more enduring than mountains.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애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사야후 54:10). 산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야훼께서는 그분의 ****헤세드(חֶסֶד)****가 산보다 더 견고하다고 말씀하신다.

Mussar: Do not measure YHWH's faithfulness by today's circumstances. Circumstances move like mountains; covenant faithfulness remains.

무사르: 오늘의 환경으로 야훼의 신실하심을 측정하지 말라. 환경은 산처럼 움직일 수 있지만 언약의 신실하심은 남는다.

7. Watchfulness Is a Way of Living

Mattiyahu 24:36–42 compares the coming days with the days of Noach. People were eating, drinking, marrying, and continuing ordinary life. Their problem was not ordinary activity itself; it was living without awareness of what was approaching.

마태야후 24:36–42 은 다가올 때를 노아후의 날과 비교한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일상의 삶을 계속했다. 문제는 일상생활 자체가 아니라 다가오는 일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갔다는 것이다.

Mussar: Watchfulness does not mean abandoning ordinary life. It means living ordinary life with extraordinary awareness. We work, eat, build, marry, plant, and conduct business while remembering that our lives remain accountable before YHWH.

무사르: 깨어 있다는 것은 일상의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삶을 비범한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일하고, 먹고, 건축하고, 결혼하고, 심고, 거래하지만 우리의 삶이 야훼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8. Devarim Shows Us What “Watch” Looks Like

Mattiyahu says, “**Watch.**” Devarim shows what watchfulness looks like in practice: return what is lost; protect your neighbor; build the parapet; pay the worker; leave something for the poor; use honest weights; remember Amalek; do not exploit vulnerability.

Mussar: Readiness for YHWH is demonstrated through faithfulness in the responsibilities already placed before us. The person waiting faithfully for tomorrow lives righteously today.

Core Mussar — Live Today as One Who Is Ready

These three passages form one powerful progression.

Devarim asks: How should you live? — with justice, compassion, responsibility, purity, and remembrance.

Yishayahu asks: What should you trust? — YHWH's enduring covenant kindness. **Mattiyahu asks:** How should you wait? — awake, faithful, and ready.

The deepest preparation for what YHWH will do tomorrow is faithfulness to what He has placed before us today. Return what is lost. Protect the vulnerable. Build the guardrail. Pay what you owe. Remember where you came from. Trust His *hesed*. Stay awake.

Mussar question for the week:

“If I truly believed I must be ready before YHWH, what ordinary responsibility would I handle differently today?”

이번 주 무사르 질문:

“내가 정말로 야훼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오늘의 평범한 책임 가운데 무엇을 다르게 행하겠는가?”

마태야후는 ***“깨어 있으라”***고 말한다. 신명기는 깨어 있음이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인지 보여준다.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고, 이웃을 보호하고, 난간을 만들고, 품꾼에게 품삯을 주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고,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고, 아말렉을 기억하며, 악한 자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무사르: 야훼를 맞이할 준비는 이미 우리 앞에 놓인 책임에 신실함으로 나타난다. 내일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의롭게 살아간다.

이 세 본문은 하나의 강력한 흐름을 이룬다. **신명기는 묻는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공의와 긍휼과 책임과 정결과 기억으로 살아라. **이사야후는 묻는다:**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가? — 야훼의 변함없는 언약적 인애를 신뢰하라. **마태야후는 묻는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 깨어 있고 신실하며 준비된 상태로 기다려라.

야훼께서 내일 행하실 일을 준비하는 가장 깊은 방법은 그분께서 오늘 우리 앞에 두신 일에 신실한 것이다.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라. 악한 자를 보호하라. 난간을 세우라. 갚아야 할 것을 갚으라.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라. 그분의 *헤세드*를 신뢰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